

광양, 연내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후보지 확정

LOCAL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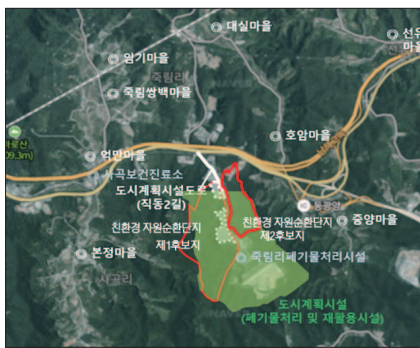
국비 593억 포함 1760억 투입...2027년 착공 목표
일일 90t 규모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정

광양시가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조성 후보지를 연내 최종 확정하고, 2027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친환경 자원순환단지시설차사업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에 발맞춰 2029년까지

지 소각시설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동시에 구축하는 대규모 환경 인프라 조성사업이다.

시는 총 1760억원(국비 593억원, 시비 1167억원)을 투입해 6만6000㎡ 이상의 부지에 일일 220t 규모의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및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는 일일 90t 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제1·2후보지

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 2023년 3

월 자원순환단지 조성 로드맵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으며, 10차례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끝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광양읍 죽림리 일원을 1·2 후보지로 선정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으로,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1후보지 선정이 어려울 경우 대안 후보지인 2후보지로 단지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후보지를 확정하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친환경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2 후보지로 선정된 죽림리 일원은 기존에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매립시설 등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집약돼 있어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조성에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광양=김재진 기자 kjkjin@gwangnam.co.kr

여수, 텀블러 전용 세척기 설치

이순신도서관 등 2곳서 운영

여수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청사 내에 텀블러 전용 세척기 2대를 시범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7일 밝혔다. 시는 청사 방문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구내식당과 이순신도서관 2곳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했으며 설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자는 텀블러 전용 세척기를 활용해 40초 내외의 짧은 시간으로 컵 내부를 고압 세척할 수 있으며, 살균 가능까지 갖추고 있어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회용품 없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일상 속 친환경 생활 습관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전 직원이 참여한 ‘1회용품 줄이기 공적자 실천서약’을 바탕으로 개인컵 사용 장려, 종이컵 사용 제한 등의 실천 정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보성,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모기 등 해충 밀도 사전 차단

보성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기존 상습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12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모기, 파리 등 해충의 발생 밀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9월 말까지 방역활동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원 다발 지역과 위생 취약지역을 우선순위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중점 방역 지역은 등산로, 하천변, 주택가, 축사 인근 등 해충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며, 읍면별 방역 차량을 활용한 연무소독과 휴대용 분무기 등을 통한 맞춤형 소독이 병행된다.

또한 군은 방역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가 방역 장비 대여와 기피제 분사기 관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정남진장흥한우’ 개량 촉진·경쟁력 강화

수정란 이식 사업 추진...초우량한우 280두 목표

장흥군은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한우의 수정란을 이식해 정남진장흥한우의 개량 촉진과 농가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함께 한우 280두 이식을 목표로 ‘초우량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체외난자채취(OUP) 방식으로 우수한 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고자 2017년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정란을 공급받고 있다.

그 결과 장흥면 ㈜보우는 2024년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 미경산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한우의 평균 출하금액은 1050만원으로 일반 농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김성 군수는 “장흥한우 1등급 출현율은 82.2%로 전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추진으로 정남진장흥한우의 10년 후 미래 유전능력 개량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장흥군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정란 이식사업은 장흥군 농가 번식우 3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에서 신청 받고 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화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내달 1~4일...농·축·임·수산물 등 기부자 선택 폭 확대

화순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은 지역 대표 특산물과 우수 상품을 발굴·선정해 기부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군은 파프리카, 사과, 화순사탕, 미니파프리카, 발골 세트, 손질 민물장어, 요구르트 세트 등 29개 업체 46개 품목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기부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안정적

으로 생산·제조 및 배송할 수 있는 업체이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이 있거나 휴·폐업한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품목은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공예(산)품, 관광서비스 등으로 공급업체는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상품의 가격대를 달리해 제안할 수도 있다.

신청·접수는 7월 1~4일이며, 신청서류를 준비해 화순군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본관 1층)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순천, 여름철 집중호우 등 중대재해 선제 대응

유관기관과 사전 예방

재난관리 협업체계 구축

순천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 중대재해 예방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공공이용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순천시를 비롯해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제7391부대 3대대, 한국전력공사 순천지

사,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국유림관리소, KT 순천지사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석해 재난 예방 및 재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발표자료(PPT)를 통해 △2025년 여름철 기상 전망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사례 △중대재해예방 주요 노력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협조 등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중대재해 예방 대응 전략사항을 공유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중대시민재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신속한 정보공유, 비상연락망 유지, 보유자원의 상호 지원, 기관별 명확한 역할 분담 등 실질적 협력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노관규 시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시행 중이다. 지난 9일에는 여름철 폭우 대비 현장 점검을 통해 도로변 우수관로와 하수관로, 맨홀 등 배수시설물을 사전 점검해 폭우와 태풍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순천=박철성 기자 2556pk@gwangnam.co.kr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S

영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중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상무지구 구름다리 옆

062) **376-5425**

NAVER 나코스